

박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있었던 일

박 봉 회

봉회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박종대, 문광주님의 아들입니다

박할아버지께서는 외국에 자주 다니셨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에서 선물을 사 갖고 오셨다. 조립식 장난감, 퍼즐, 리모트 컨트롤 자동차,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한번은 일본에 다녀오실 때 나뭇조각을 조립해서 정14면체의 모양을 만드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장난감을 사다 주셨다. 그 정14면체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꼭 나중에 남는 부품 하나가 안 들어가서 새벽 두시까지 기를 쓰고 조립했었다. 워낙 오래 조립하다 보니 짜증도 나고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갔다. 그러자 박할아버지께서는 천재 에디슨의 얘기를 들려주셨다.

에디슨이 어떤 물건을 발명하면서 99번째 실패를 하고 100번째 도전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했다. 에디슨은 “비록 내가 99번 실패했지만 99번 안되는 방법을 알아냈다.”라고 말하고 100번째에 성공을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서 14면체 조립식 장난감을 완성할 수 있었다.

빨간 리모트 컨트롤 자동차를 사 오셨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우리 나라에서 산 것은 멋없이 크고 건전지도 많이 소모되는데 할아버지께서 사다주신 것은 감쪽하고 가지고 놀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 국회의사당 퍼즐은 800피스나 되는 초대형 입체 퍼즐이다. 이것을 조립하느라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맘을 홀렸다. 우리 나라에서는 입체 퍼즐을 찾아볼 수 없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신기하다고 했을 만큼 멋있고 훌륭하다. 이 사할 때도 부서질까봐 따로 승용차에 싣고 왔을 정도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장난감은 대부분 할아버지께서 외국에서 사다주신 선물로 장식되어 있다.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다.

“박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